

## 「랏셀」의 哲學 及 社會改造論 (十五)

저자미상

『크로포트킨』의 計劃으로는 必竟 作家의 組合이 잇서스 이계 經營委員이 附□하여, 그리하여 이 經營委員은 提出된 書籍中에 엇더한 것이 印刷에 付할 價値가 잇느냐 하는 것을 決定한다. 여기서는 委員 自身의 著術과 友人의 著術이 잇스나 彼等 敵의 著術은 업슬 것이다. 그리하여 原稿를 拒絶된 著作家는 成功한 反對의 著作家를 活字에 組入할 일을 □視하게 될 것인가? 假令 書籍을 印刷할야면 거게는 精巧한 相互 □助制度가 업스면 아니 될 것이다. 萬一 그것치 안코 他의 計劃을 實行할 ㅅ에는 文學者間의 調花를 保有하기는 □히 困難할 것이요, 또 比에 依하여 非凡한 傾向의 著作이 出版되는 일도 測定할 수 업다. 例하면 『크로포트킨』 自身의 著術도 □히 □成을 得하기는 困難할 것이다.

이제 比等 困難에 對抗할 唯一의 道는 國家社會主義와 □□社會主義와 無政府主義와를 不問하고 萬一 國文는 『질드[길드]』가 □用으로써 出版하기를 欲求하지 아니하는 書籍은 著者의 自費로 出版하게 될 것이다. 余는 이 方□이 社會主義의 精神에 反하는 일을 안다. 그러나 이 以外에 自由를 獲得할 手段이 잇슬 것인가? 以上에 論한 余의 意見에 對하여서는 勿論 正統派 社會主義者는 反對할 것이다. 그러나 要件댄 余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한 社會主義의 社會에서는 藝術家 及 科學者에 對하여 資本主義社會보담은 一層 善良한 機會를 無限이 提供함에 잇다.

(第三) □賞眼의 可能□--이 條件은 創造的 政治에 從事하는 사람에 依하여 必要할 ㅅ 아니라 余의 意味하는 바로는 大多數의 人士에 依하유 □하지 못할 것이다. 余는 말하건댄 『理□』 그것이다. 藝術이 □大하다는 自然의 感情이다. 全然 兩□化한 社會에서는 藝術家가 □□을 □造하면 尊敬되고 또 □造한 ㅅ담에 尊敬된다. 그러나 □가 □□을 得한 原因의 藝術品에 對하여서는 下等의 尊敬도 拂하지 아니한다. 무슨 □□의 □□로 財産을 맨든 百萬壯 □者는 □異의 眼으로써 歡迎된다. 그러나 이 感情은 彼에 依하여 □를 得한 品物에 對하여 拂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貨□로써 測定하는 社會에서는 藝術家도 또한 同一한 取扱을 免할 수 업다. 萬一 藝術家가 金□家가

된다하면 尊敬되는 것이다. 그러나 彼の 著術과 □□는 다만 金錢에 對한 手段으로 생각될 뿐이다. 如斯한 □□氣 中에서 藝術家가 純粹한 創造的 衝動을 維持하는 일은 困難하다.

以上の 藝術 及 科學에 對한 三個의 必要條件으로부터 卽□□ 自由□賞의 見地로부터 國家社會主義는 現在의 害□ 除하지 안코는 自身에 새로운 害惡을 移入한다는 일은 明白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드』 社會主義 又は 『산티카리승』일수록 萬一 그것이 公認된 職業에 從事하는 時間이 一般人보담 □少하여도 조차는 自由□□을 採用한다 하면 資本主義 制度下에서 可能할 何物에도 □해야 無限이 □秀할 것이다. 그러나 萬一 自由의 重大하다는 것이 完全히 承認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은 모다 消滅되고 말 危險이 있다.

이 點에 잇셔는 모든 他事物에 依함과 갓티 『最善의 道는 恒常 自由에의 道이다.』 (終)